

# 양현종, 윌리엄스 감독 기대 “새롭다, 잘 이끌어주실 것”

“새로운 감독님 오시면 더 잘해야겠다 마음가짐”



양현종과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참가를 앞둔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t위즈파크에서 훈련하고 있다.

국가대표팀 에이스 투수 양현종(31)이 KIA 새 사령탑 맷 윌리엄스(54) 감독과 만남을 기대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2019 WBSC 프리미어12 국가대표팀이 20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훈련을 이어갔다. 지난 11일 첫 훈련 시작 후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소집 첫 날부터 대표팀에 합류, 훈련한 지 열흘이 지난 양현종은 이날 불펜에서 간단하게 공

을 던지며 어깨를 풀었다. 21일 정식 불펜 피칭으로 본격적인 실전 준비에 나선다. 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양현종은 “시즌이 끝난 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잘 쉬었다. 이제 대표팀에서 다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예년에 비해 대표팀 훈련량이 많아 준비가 더 잘되고 있다. 아직 상대팀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등판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현종이 대표팀에서 훈련한 사이 소속팀 KIA는 창단 첫 외국인 감독으로 맷 윌리엄스를 선임했다. 메이저리그 17시즌 통산 378홀런을 터뜨린 스타 출신으로 2014년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며 지도력도 인정받았다. 지난 16일 KIA와 3년 계약을 체결한 윌리엄스 감독은 17일 입국한 뒤 이튿날부터 합평에서 마무리훈련을 지휘하고 있다.

양현종은 “새롭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된다. 전에 계셨던 김기태 감독님과 박흥식 감독님이 선수들을 워낙 잘 이끌어주셨다. 새로운 감독님도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대표팀에 나와 있어 아직 감독님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 새로운 감독님이 오시면 항상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현종은 지난 2009년 일본인 간베 토시오 투수코치와 함께한 바 있지만 미국인 감독은 처음이다. 양현종과 KIA 선수단 모두 새로운 수박에 얹다. 양현종은 “마무리캠프 중인 KIA 선수들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 다들 열심히 훈련 중이라 괜히 연락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보험 사라진 한국야구, 도쿄올림픽 진출 경우의 수는?

선결조건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진출해야

이후 대만·호주보다 좋은 성적 기록해야

실패 시, 대만의 이른 직행 티켓 획득 기적 뿐

아마추어 선수들을 내보낸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중국에 2년이나 무릎 꿇는 굴욕을 당한 한국야구. 무엇보다 당장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 보험이 사라진 점이 뼈아프다. 남은 본선진출 경우의 수는 사실상 단 하나, 제2회 프리미어12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길 뿐이다.

윤영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지난 20일 대만 타이베이 중 인터컨티넨탈구장에서 열린 제29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3·4위전에서 중국에 6-8 충격패를 당했다. 초반 4-0 리드를 지켜내지 못한 역전패. 대회 내내 일본, 대만은 물론 중국에도 한 번을 이기지 못했다.

이로써 대회를 4위로 마친 한국은 이번 대회에 2장이 주어졌던 내년 3월 도쿄올림픽 최종 세계예선 티켓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개최국 일본을 제외, 대만과 중국이 기회를 얻었다.

일종의 올림픽진출 패자부활전 격인 내년 최종예선의 티켓 획득은 일종의 보험으로서 중요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프리미어12에서 도쿄올림픽 본선진출 티켓을 따내지 못할 경우 최종예선에서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스러운 일정이고 티켓 획득 또한 장담할 수 없지만 기회가 한 번 더 생기는 것은 삼라만상 속에서

면에서 나쁘지 않은 요소였다.

그러나 이 기회마저 사라진 것이다.

이제 야구대표팀이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은 정예 멤버가 출전할 프리미어12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 다른 팀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뿐이다. 개최국 일본을 제외한 대만, 호주보다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C조에 포함된 한국은 호주와 한 조에 속해있다. 대만은 일본과 함께 B조에 포함됐다.

다만 이 또한 조별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한국 포함 호주, 대만 모두가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슈퍼라운드 진출에 실패하면 이 티켓 한 장은 내년 3월 세계예선으로 넘어간다. 여기에 한국이 참가할 수 없으니 도쿄올림픽 진출 실패가 되는 것이다.

또는 호주만 슈퍼라운드 진출하거나, 호주가 한국, 대만보다 좋은 성적일 경우 한국은 올림픽 진출에 실패한다. 이 경우 대만은 최종예선에서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설 수 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한국이 슈퍼라운드 진출하지 못하고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대만이 호주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슈퍼라운드에도 진출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만이 본선진출을 확정하게 되고 한국은 차순위



김경문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로서 중국과 함께 내년 3월 최종예선에서 다시 한 번 티켓획득에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 일본,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와 한 조인 대만이 조 2위를 차지할 확률이 낮기 때문.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순위는 대만이 4위를 마크하고 있지만 야구강호로 꼽히는 상대팀들의 전력이 만만치않다. 일본이 워낙 확실한 1위 확률을 갖고 있어 한 자리를 두고 벌이는 경쟁지체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도쿄올림픽 본선진출은 프리미어12에서 슈퍼라운드 진출하고 이후 호주, 대만보다 좋은성적을 거두는 길 뿐이다. 김경문 야구대표팀 감독은 관련 소식을 듣고 “우리(프리미어12 대표팀)가 잘해서 올라가야 한다”며 굳은 각오를 밝혔다.

뉴스1

## 美 매체 “다저스 류현진 공백? 양키스와 콜 영입 경쟁할 것”

LA 다저스가 류현진과 재계약 대신 게릿 콜(휴스턴 애스트로스) 영입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저스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다저블루는 21일 앤드루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시즌 다저스의 전력 보강 방안을 분석했다.

프리드먼 사장은 “우리는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선수층을 가졌으면서 동시에 재정적 여유도 있다”며 “우리는 열린 마음

으로 팀 상황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 시즌 다저스는 106승으로 구단 역대 최다승을 기록, 7년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디비전시리즈에서 워싱턴 내셔널스에 패하며 숙원이던 월드시리즈 우승에 실패했다.

프리드먼 사장은 “2020년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팀을 바꾸려는 이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프리드먼 사장의 코멘트와 함께 다저블루는 류현진을 언급했다. 다저스가 내부 FA 류현진과 리치 힐과 재계약하는 대신 ‘최대어’ 게릿 콜 영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저블루는 “다저스가 류현진, 힐과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선발지리에 구멍이 생긴다”며 “시장에 나오는 최고의 투수는 콜이다. 다저스는 이미 뉴욕 양키스, 휴스턴과 강력한 영입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 벨기에 언론 “이승우 불성실, 훈련 중 쫓겨났다”

빅리그 중 하나인 이탈리아 세리에A의 헬라스 베로나 소속이던 이승우가 벨기에 1부리그 신트 트라위던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게 지난 8월 말이었다.

스페인인 매머드 클럽 바르셀로나에서 성장해 세리에A까지 밟았던 이승우가 무대의 레벨을 조금 낮춰서라도 이적을 결심한 것은 결국 ‘출전’에 대한 갈증 그리고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약 7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승우의 벨기에리그 데뷔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런 외증 벨기에 언

론이 이승우가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신트 트라위던은 21일 오전(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안더레흐트와의 2019-2020 벨기에 주필리그 11라운드에서 1-4로 완패했다. 이번에도 이승우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아예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이 경기에 앞서 ‘부트발벨기에’는 ‘신트 트라위던은 이승우를 품기 위해 120만 유로(15억7800만 원)를 투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 차례로 뛰지 못했다’면서 에둘러 실패에 가까운 영입이라고



졌었다. 매체는 “훈련 중 불성실한 태도로 라커룸으로 쫓겨났다”는 내용도 전했다.

부트발벨기에에는 이승우 스스로의 자각을 요구했다. 매체는 이승우가 바르셀로나 출신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다는 것만으로 이곳에서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며 꼬집었다.

화순군  
HWASUN-GUN

임대정원림

연둔송정기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송정기→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